

## 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<필수>

2014년 시행 5급(행정) 공채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乙은 甲과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. 그 후 乙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, 甲은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.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후에 甲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법원은, “乙은 甲에게 건물을 인도하고, 건물인도시까지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소송비용도 乙이 부담한다.”고 판결하였다. 그러자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소 제기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고, 甲이 채권양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30점)

- 1) 甲이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 연체된 차임과 건물인도시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한가? (20점)
- 2) 甲이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 乙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한가? (10점)

제 2 문. 甲은 1992. 6. 1. 자기 소유 X토지 위에 지상건물을 신축하였는데, 위 건물을 신축할 당시 X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일부분(Y토지)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써 건물의 외벽이 Y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. 甲은 X토지와 위 지상건물을 1992. 9. 14. 乙에게 매도하였다. 乙은 Y토지도 X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생각하고, 甲으로부터 X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Y토지와 함께 X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받았다. 그리고 乙은 甲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부동산들을 1997. 9. 1. 丙에게, 그리고 丙은 2007. 6. 1. 丁에게 순차로 매도하여,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가 순차로 이루어졌다. 그런데 2010. 6. 1. 지적측량결과 Y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1991년부터 계속하여 戊임이 밝혀지자 戊는 2010. 9. 1.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丁 소유 건물의 외벽이 Y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이유로 丁에게 건물외벽의 철거 및 Y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. 丁이 戊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, 2014. 4. 1. 戊가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 외벽의 철거 및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 戊의 丁에 대한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련된 쟁점들을 논하시오. (30점)

제 3 문. A의 17세 된 子 B는 사립고등학교(C 학교법인, 교장 D)에 다니는데, 평소 학교에서 동료 학생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많았고 종종 폭력을 행사하여 문제가 되었다. 학교 체육수업 중 교사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B가 같은 반 학생 F와 싸우게 되었고 결국 흉기로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. F에게는 상속인으로 20세의 누나 G가 있을 뿐이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40점)

- 1) G는 어떠한 근거에서 B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? (10점)
- 2) G는 어떠한 근거에서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? (10점)
- 3) 손해배상을 한 A가 C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? (10점)
- 4) G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도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? (10점)

##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장



안전행정부

민법(친족상속법 제외)<필수>

